

핫지 기도

2023년 6월 26일~28일

핫지(성지순례)를 떠나는 무슬림들을 향한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와 금식으로의 부르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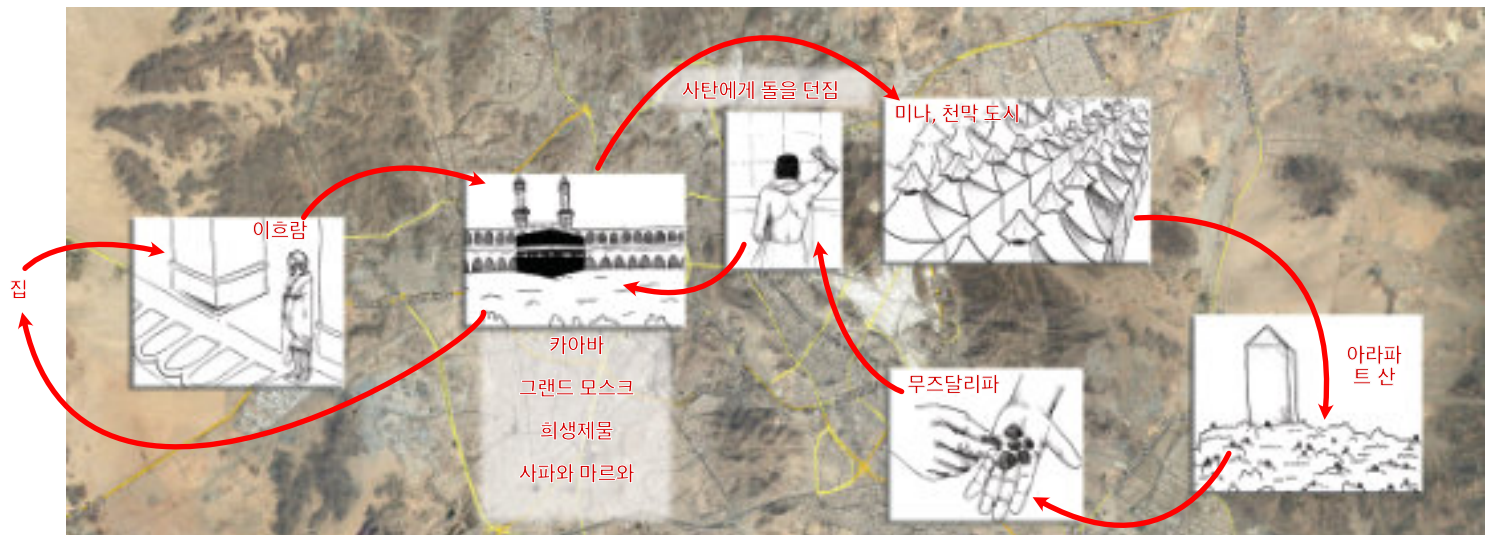
소개

누가복음 7장에 예수님은 죄 많은 한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님은 하나님이기때, 십자가의 대속과 그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의 신령한 이름과 자비를 찬양합니다! 핫지만 이 세상을 사는 오늘 날 15억 무슬림들은 예수님의 주되심을 거부함으로써 그 자비를 거부합니다. 그 대신, 알라에게 죄를 용서 받고자 사우디 아라비아의 메카로 핫지 순례를 떠납니다.

하디쓰(무함마드의 언행록)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부 후라이라가 말하기를: 선지자가 말하기를 “알라를 위해 핫지 순례를 다녀오고, 입에 음란한 말을 담지 아니하며, 사악한 행위를 하지 않는 자는, 어머니가 낳아 주셨던 날처럼 (죄 없는) 상태로 돌아갈 것이다. (알-부카리 1449; 무슬림, 1350) 그렇기에 무슬림들에게 핫지 순례는 삶의 정점이 됩니다. 순례를 통해 자신의 죄 사함을 구할 뿐만 아니라 알라를 향한 충성심 또한 더 돈독히 하려 합니다. 핫지 순례는 이슬람의 다섯 기둥 중 하나이기 때문에 모든 무슬림들이, 할 수 있다면, 일생에 최소 한번은 꼭 다녀와야 합니다.

핫지 기간은 이슬람 달력으로 12번째 ‘돌 하자’월의 8번째 날부터 시작합니다. 이 기간 중에는, 전 세계에서 300만명 정도의 무슬림들이 그들의 선지자 무함마드를 따라 성스러운 의식을 치르기 위해 메카로 모입니다. 올해 핫지는 8월 18일부터 시작해서 삼사일 정도 진행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핫지 순례를 떠나는 무슬림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부터 핫지 기간 동안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정보와 기도제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 기간을 준비하기 위해 히브리서 9장1절부터 10장19절까지 읽어보십시오.

핫지 기도는 저작권이 없으며 아라비아 반도를 향한 기도, prayforap.com을 통해 무료로 배포됩니다.





종교의식 1: 이흐람 (정결, 준비하는 날)

순례자들은 몸을 씻고, 단순한 하얀색 옷을 입으므로 이흐람 (정결)이라는 의식을 행하게 됩니다. 순백의 옷은 모든 순례자들이 평등함을 상징합니다. 이 정결 의식을 통해 순례자들은 공식적으로 핫지 순례를 시작하게 됩니다. 순례의 경계지를 지나며, 남성들은 ‘탈비야’라는 무슬림 기도를 외칩니다: “저는 여기 주님을 섬길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저는 주님을 섬길 것이며, 제가 섬기는 주님은 파트너를 두지 않으십니다. 주님만이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며, 모든 주권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은 파트너를 두지 않으십니다.”

이 정결 의식을 행하는 날에, 순례자들은 그랜드 모스크에 있는 카아바를 방문합니다. 많은 순례자들이 그랜드 모스크를 나와 밤을 보내기 위해 걸어서 천막 도시인 미나로 갑니다.

기도를 위한 성경 말씀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3)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히브리서 9:11-14)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때

-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예수님의 광채가 오늘 메카를 강하고 환히 비추도록 기도합니다. 무슬림들이 예수님께서 “죄를 정결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들의 영적 여정에 예수님에 대한 꿈과 환상이 함께 하도록 기도합니다.
- 그랜드 모스크로 들어가 카아바를 보는 무슬림들은 세상에서 가장 성스러운 곳으로 들어왔다고 느낄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4절은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신 손으로 짓지 않은 “온전한 장막”에 대해 얘기합니다. 순례자들이 오직 예수님만이 깨끗한 양심과 영원한 속죄를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도록 기도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가장 성스러운 장소입니다.
- 이슬람에서 무언가를 금지하는 때는 이번 생과 다음 생에서 받을 벌에 대한 경고를 동반합니다. 그와 같이, 이슬람에서 권고하는 행동은, 순종했을 때에 개인적으로 받을 상에 대한 약속을 동반합니다. 때로 이 상은 축복이나 신의 가호일 때도 있지만, 많은 무슬림들이 가장 바라는 상은 죄 사함입니다. 그렇기에, 많은 사람들이 성지순례를 한번만 다녀오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으로 가능하면 무슬림에게 의무사항이지만), 할 수만 있다면 여러 번 계속해서 다녀오려고 합니다.
- 많은 무슬림들, 특히 젊은 무슬림들이, 요즘 급격히 상업화 되어가는 핫지 순례에 대해 허무함을 느끼게 되도록 기도합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공허한 의식과, 죽은 행위와 위선에 실망하게 되도록 기도합니다.

종교의식 2: 우꾸프 (아라파트 산에 오르다)

오늘은 핫지 기간 중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무슬림 학자들에 의하면, 이 날이 “이슬람 종교가 완성된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꾸프를 지켜야만 핫지 순례가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날, 무슬림들은 크고 작은 죄가 용서 받는다고 믿습니다. 오늘의 의식을 놓친다면 순례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오늘, 무슬림들은 아라파트 산 근처에서, 서거나 앉은 자세로, 알라에게 자비와 용서를 호소합니다.

무슬림들은 오늘 하루를 마치며, 죄사함을 받고 비로소 수치심에서도 자유로워진다고 믿습니다. 해가 질 때 대포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 순례자들은 아라파트 산을 떠나 무즈달리파에 도착해 잠을 자거나, 별 아래서 밤을 지새우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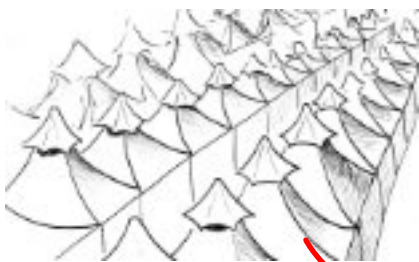
기도를 위한 성경 말씀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 1: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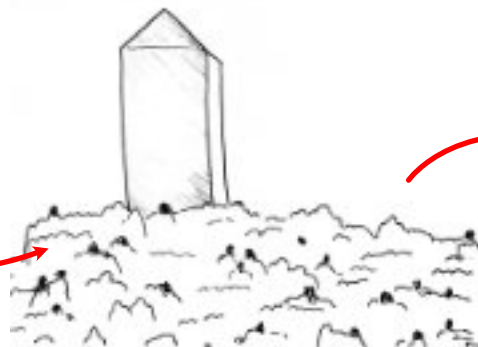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라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시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행 10:42-43)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때

- 무슬림 순례자들은 자신의 인생에서 크고 작은 죄들이 씻겨 지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양이라고 외쳤습니다. 무슬림들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받아들이고 기뻐하기 전까지는 진정한 마음의 정결함을 느낄 수 없도록 기도합니다.
- 하나님은 예수님을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재판관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죄 사함을 받을 것입니다. 주 예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의 진리가 신과 가까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무슬림들의 마음을 관통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들이 생명을 주시는 분에게 이끌리어 그분의 이름만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도록 기도합니다.
- 많은 무슬림들이 밤새 기도하는데, 기도 중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꿈과 환상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하늘의 문을 열어 그들을 만나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 자신의 죄에 대한 깊은 자각과 그 죄로부터 자유로워 지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은 성령님이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신 확실한 증거입니다 (요한복음 16). 많은 이들이 죄사함만을 통해 평안을 얻으려 하지만, 지속되고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될 때 누릴 수 있습니다. 이 관계의 회복은 핫지 순례로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의 보혈의 대가로만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슬림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관계 회복을 누릴 수 있을 때까지, 핫지에서 평안을 얻지 못한 상태로 집에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미나, 천막 도시



아라파트 산



무즈달리파 돌을 모으기

핫지 기도

핫지(성지순례)를 떠나는 무슬림들을 향한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와 금식으로의 부르심

셋째 날

6월 28일

순례자들에게 핫지 셋째 날은 아주 긴 날입니다. 다섯가지 의식을 치뤄야 하며,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 사단의 기둥에 돌을 던집니다.
- 남자들은 검손과 청결의 의미로 머리를 깎습니다.
- 순례자들은 허용되는 동물을 희생 제물로 바칩니다.
- 순례자들은 카아바를 7번 돌입니다.
- 아들 이스마엘을 위해 물을 찾으러 나갔던 하갈을 기념하기 위해 순례자들은 사파와 마르와라는 두 언덕 사이를 달립니다.

기도를 위한 성경 말씀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나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10~14)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에베소서 6:12)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때

- 무슬림들은 영적인 싸움이 사단에 의해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사단은 주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무찌르셨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사단에게 돌을 던지는 의식을 치루어도, 십자가의 능력 없이는 아무 소용 없는 일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와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고린도후서 10:4) 그리스도의 무기를 알게 되도록 기도합니다.
- 구약성경에서 동물을 희생제물로 바친다는 것은 죄사함을 상징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신 이후로는, 더 이상 희생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모든 죄를 덮기 때문입니다.
- 무슬림들이 예수님의 희생과 십자가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오전해지고 성화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 무슬림들이 카아바를 돌고, 언덕 사이를 뛰는 동안 그런 의식들이 무의미함을 느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들이 생명의 물이신 예수님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핫지에서 많은 기호와 의식들이 이교도에서 유래했지만, 창세기에 있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유래된 것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슬람에서 중요한 선지자입니다. 하지만 코란에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야기가 훨씬 더 풍부하고, 공감하기 쉬우며, 강력한 매력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아브라함이 온 세상을 축복할 구세주가 오실 것을 암시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무슬림들이 아브라함이 희생제물을 드렸던 이야기에 대해 배우고 나눌 때,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그가 이삭 대신 희생했던 양의 진정한 의미 - 그것이 곧 하나님의 독생자이며 그의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 알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기도합니다.



무즈달리파



사단에게 돌 던지기



남자들은 머리를 깎을 것입니다.



동물을 희생 제물로 드리기



카아바를 7번 돌 것입니다.



셋째 날, 두 동산 사이를 달립니다.

